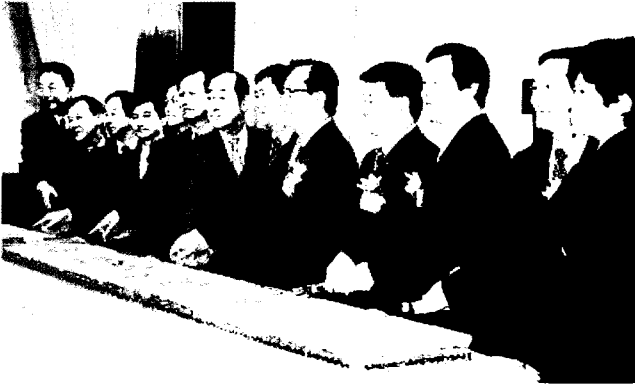


IT산업 경제회복 가속화



'2010 IT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 인사들이 협력과 발전을 기원하며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정명화 한국전자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임래규 차세대컴퓨팅산업협회장, 김동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김신배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장, 김종갑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용구 국회 지식경제위원, 오해석 IT특보, 고정식 특허청장

IT산업계가 올해 설비 20조6000억원, R&D 11조6000억원 등 총 32조원을 투자해 경제회복 가속화의 선봉에 선다. 특히, 소프트웨어 강국 실현, IT융합 확산, 3D 신산업 육성 등에서 가시적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산업계와 협·단체, 정부가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IT산업인들은 세계 일류제품과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회복과 IT산업 위상 강화에 IT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을 것을 다짐하였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1,210억 달러의 수출과 59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IT산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2010년에도 IT산업인들이 경제회복의 가속화와 IT산업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IT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휴대폰, 반도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SW Korea 실현, IT융합 확산, 3D 신산업 육성 등 SW와 IT신산업 육성에 정책적인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1월 18일 최경환 장관, 오해석 청와대 IT특별보좌관, 김용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김신배 SK C&C 부회장,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 등 IT업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IT산업인 신년 인사회'를 열고, IT산업의 새로운 용비를 다짐했다.

이번 'IT산업인 신년인사회'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서비스산업협회, RFID/USN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정보산업연합회, 전자거래협회 등 9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IT업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세계 IT산업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10년 IT산업의 세계시장은 '09년보다 3% 성장한 3조 3,039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Gartner, 2009.9)이다. 남미(8.8%), 중동/아프리카(5.6%) 등 신흥시장이 성장을 주도하며, 선진시장(북미 2.9%, 서유럽 3.0%)도 감소세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국내 IT산업 동향 및 전망에서, '09년 IT수출은 전년대비 7.8% 감소한 1,209.7억 달러, IT무역수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07년(603.7억 달러)에 이어 사상 두 번째인 58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년 국내 IT 수출은 9.9% 증가한 1,3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휴대폰 글로벌 수요 회복, 정보기기 저가제품 수요 증가, 반도체 경기회복 및 디스플레이 성장 지속 등이 성장 동인이 될 전망이다.

국내 IT업계 투자 전망(IT업계 설문조사 결과, '09.8)에서, '10년 IT업계는 '09년(28.3조원) 대비 13.8%가 증가한 총 32.2조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설비투자액은 '09년(17.4조원) 대비 18.4% 증가한 20.6조원, R&D 투자('09년 10.9조원)는 6.4% 증가한 11.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